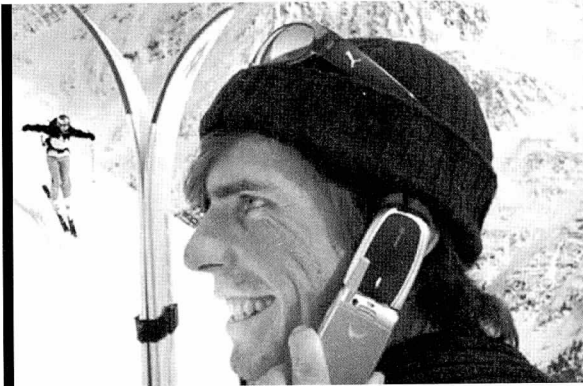


이동전화 단말기 수요 ② 월드와이드

올해 세계 휴대폰시장 8.5억~9억대 노키아·모토로라, 3억대·2억대 돌파? 50달러 이하 초저가폰 마케팅 본격화

2006년 전세계 휴대폰 판매대수는 8억 5000만~9억대로 올해보다 10~15% 증가할 전망이다. 노키아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 예측을 참고로 한다면 작년 8억대 정도의 시장보다 5000만대~1억대 정도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인도 등 신흥 시장의 수요 급증 외 북미와 유럽에서 3G 서비스 보급 활성화가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글 | 김종을 기자(모바일타임스, people@cellular.co.kr)



2005년 세계 휴대폰시장

가트너가 발표한 작년 3분기까지의 실적과 모바일타임스의 예상 4분기 실적을 합산했을 때, 2005년 세계 휴대폰 시장은 8억대 정도로 분석됐다. 당초 가트너는 7억8000만대 수준에서 3분기에 8억1000만대로 수정하기도 했을 만큼 2005년 시장은 호조였다. 예상보다 3000만~4000만대나 시장이 커졌다.

3분기까지 가트너가 집계한 휴대폰 시장은 5억7600만대였다. 1분기 1억8000만대를 시작으로 2분기 1억9000만대, 3분기 2억500만대 실적을 기록했다. 4분기 집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연말 특수 상황을 감안했을 경우, 작년 4분기 1억9500만대보다 20% 정도의 시장 성장은 충분히 낙관돼 4분기 예상 공급량은 2억3000만대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연간 실적은 8억대로 분석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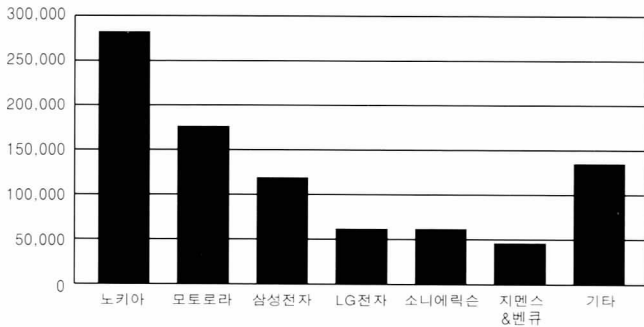
작년 휴대폰 시장 규모가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아시아·남미 등 신흥국에서 신규 가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북미의 교체수요가 많았던 것도 한 요인이다. 특히 중국은 휴대폰 가입자가 연간 6000만명 증가했을 만큼 2005년 휴대폰 시장을 이끌었다. 중국의 이동전화 사용자는 2004년 12월 3억3400만명에서 2005년 말 4억명에 육박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휴대폰 시장의 큰 폭 성장에 힘입어 메이저 휴대폰 업체들의 실적향상도 대폭 이루어졌다. 노키아는 연간으로 2억대를 돌파한 작년에 이어 올해 2억5000만대는 무난히 공급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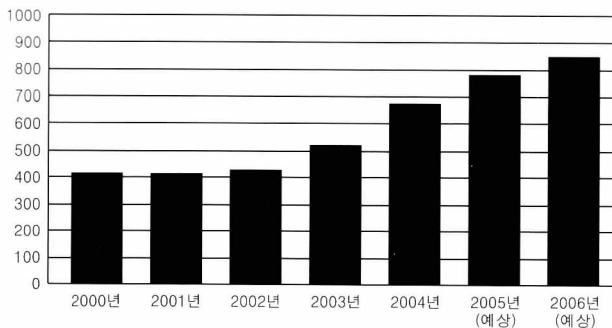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억대 공급을 돌파했다. 작년 12월 중순 삼성전자는 자사 휴대폰 생산 이래로 연간 1억대 돌파를 발표했다. 한 업체가 연간으로 휴대폰 공급 1억대를 돌파한 것은 노키아 및 모토로라에 이은 세 번째 사례. 그만큼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을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삼성전자와 치열한 2위 싸움을 펼칠 것으로 전망됐던 모토로라는 작년에 1억4000만대 정도의 물량을 공급한 것으로 관측됐다. 3분기에 이미 1억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06년 제조업체별 휴대폰 실적 예상 (단위: 천대)



연도별 휴대폰 공급량 (단위: 백만대)



따라 그 정도의 공급이 예측되는 것. 모토로라의 업계 예측을 뛰어넘는 실적효과는 '레이저폰'의 인기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제품은 2004년 하반기 출시돼 작년 3분기까지 무려 1000만대를 판매하는 놀라운 인기를 누렸다. 삼성전자의 1000만대 돌파 인기폰 '블루블랙폰'과 더불어 작년 최고 히트모델로 기록될 정도였다.

소니에릭슨과 4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LG전자는 3분기까지 4000만대 정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5000만대 돌파는 무난한 상황이며, 4분기 실적 여부에 따라 5500만대의 연간 기록에도 기대되고 있다. 소니에릭슨 역시 LG전자와 비슷한 5000만대의 연간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006년 세계휴대폰 시장

2006년 휴대폰 시장 전망은 8억6000만대를 전망하는 일부 보수적인 업체가 있는 반면 9억대를 기대하는 낙관적인 업체도 있다. 세계 휴대폰시장의 경우, 2004년 6억2500만대에서 2005년 8억대 정도 팔렸다. 연간으로 무려 1억7500만대 증가를 이룬 것. 그러나 올해 증가는 작년만 못할 것이라

중론이다. 시장 포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체수요 만으로 시장을 이끌기에는 힘에 부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흥국의 가입자 증가가 식을 줄 모르고 있으며, GSM방식의 저가폰이 시장을 견인한다면 의외로 9억대 돌파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그동안 휴대폰 시장은 업계 예상을 훨씬 웃돌고 있어 연간으로 5000만대 정도의 업계예상을 2006년에도 달성하지 못할 건 없는 것이다.

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 기대되는 부분은 노키아의 연간실적 3억대와 모토로라의 연간실적 2억대 돌파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힘이 실리지만 시장이 9억대를 돌파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전망도 있다.

노키아와 모토로라의 점유율 경쟁도 2006년 볼거리 중 하나이다. 노키아의 점유율 32% 유지가 일정정도 계속되는 가운데, 모토로라가 처음으로 연간 20%의 점유율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두께 11mm를 실현한 레이저 후속버전이 등장했으며, 저가폰 시장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바, 모토로라의 점유율 20% 달성은 다소 낙관적이다.

여기에 더해 양사의 50달러 이하 초저가폰 판매 경쟁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도 및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될 초저가폰 판매는 점유율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 먼저 공격을 시작한 업체는 모토로라였다. 모토로라가 인도시장 공략을 위해 38달러(3만 8000원)의 초저가폰을 작년 말 출시한 것.

외신에 따르면 모토로라가 작년 12월 말 바형의 C115 휴대폰을 38달러에 출시했는데, 이 제품은 카메라 및 주요 멀티미디어 기능은 없고 흑백화면을 지원한다.

38달러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 모토로라는 올 상반기 중 20달러대의 휴대폰도 인도시장에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모토로라와 노키아는 이 정도 가격대 휴대폰을 인도시장에 출시한 데 이어 중국시장에서도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K]

